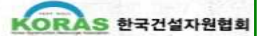


협 회 일 보



신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자원협회 박하준 회장입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건설폐기물 처리업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임원분들과
업계 모든 종사자 여러분들의 수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22년은 개인적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여

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의 첫발을 내딛는 뜻깊은 한해이며,
업계에 대한 이해와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바쁜 한해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33년의 공직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일선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공 발주기관을 중심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업계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각 지방·유역환경청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통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업계와 정부 및 국회 등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를 통해
업계 발전에 기여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사 대표이사 및 종사자 업계 여러분 !

한국건설자원협회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해
순환골재를 통한 건설산업 발전과 환경보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기반마련과 순환골재의 품질유지·관리 기술개발 등
재활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간과 비용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이 대한민국의 순환경제 달성에
반드시 필요한 중추적 역할을 함으로써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밝아오는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도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검은 토끼 해인만큼 총명하게 전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망하시는 모든 일 이루시고 가정이 모두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한국건설자원협회 박하준